

# 국립의대범도민추진위 “통합의대 설립 총력”

## 집행위원회,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성공적 설립 지원 결의 각계 ‘목포대·순천대 통합 합의’ 환영 성명도 연일 이어져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는 19일 전남도청에서 집행위원회 7차 회의를 열어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과 통합의대 합의를 환영하며 통합국립의대 설립 지원에 온 힘을 쏟을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종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전남의 의료계·경

제계·학계 등을 대표하는 집행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지역의 역량을 집중, 전남도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기반이 될 통합의대가 성공적으로 설립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 박종범도민추진위공동 집행위원장은 “두 대학의 대승적 통합 합의에 따른 전남도 통합의대 추진은 2026학년도 개교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며 20만 전남도민이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하나 되 만들어낸 성과”라면서 “대학 추진 이후에 정부가 의대 설립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범도민추진위도 온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범도민추진위는 지난 10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고통받는 도

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민 상생과 화합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통합의대와 양 지역 대학병원 설립을 지지했다. 전남도는 이날 집행위원회 회의에 앞서 집행위원들에게 전남도 통합의대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통합·통합의대 추진 합의를 환영하는 각계 각종 환영 성명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시도민회·전국호남향우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양 대학 통합과

통합의대 추진을 통해 전남도가 의료 혁신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도민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통합의대 설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국회도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30개 단체로 구성된 전남사회단체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통합의대 설립은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도민 모두 어디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전 도민의 건강권·생명권을 지켜낼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산업경영인전남도연합회 역시 환영 성명을 내 “통합 의과대학 설립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어린이집연합회,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 전국이동장애회전남지부도 각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김재정 기자

## GCC사관학교 1기 수료식 ‘콘텐츠 인재’ 132명 배출

광주시는 19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VX스튜디오에서 ‘GCC사관학교 제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GCC사관학교는 광주시가 문화콘텐츠 분야 뿌리에서부터 전문가까지 탄탄한 인재 양성 사다리를 완성하기 위한 인재양성 사업이다. 게임·애니메이션·웹툰·실감콘텐츠 등 콘텐츠 분야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광주시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무료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교통비 증식비 지원, 타 지역 교육생을 위한 기숙사 등을 제공해 청년들의 참여를 북돋웠다. 올해 1월 첫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391명이 지원해 202명의 경쟁률을 보였다. 제1기 교육생은 총 173명이 입교해 기본과정, 중급과정, 메이커톤, 팀프로젝트 등 8개월간 약 1천200시간의 체계적 교육과정을 거쳐 이중 132명이 수료했다. /박선강 기자



교육생 성과물 관람 19일 오후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열린 ‘GCC사관학교 제1기 수료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이 교육생 성과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 ▶1면 ‘팻코노미 시대’서 계속

이문영 호남대 반려동물학과 교수는 “팻헬스케어, 팻서비스, 팻테크 등 국내 팻 시장은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헬스케어 제품이나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상품화되는 등 인의(人醫)에 못지않게 동물 의료 분야도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또 “창업경진대회에 가보면 학과와 무관하게 팻 산업 관련 제품을 아이템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팻 휴머니제이션 현상에 따라 향후 팻 관련 산업이 갈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박미정 시의원 “사업 효과 한계 이미 예상돼” 비판

광주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 중인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9일 광주시 여성가족국에 대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원 대상 여성의 항물리관호르몬(AMH) 수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난자동결도 젊고 건강할 때 하는 것이 향후 임신에 유리한 데 기준이 높아 수혜자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올해 1회 추경 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7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이달까

지 지원액은 3명 33만원에 불과하다. 부진 원인으로 AMH 및 소득 기준 부적합 42.8%, 거주 요건 부적합 28.6% 등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정리 추경에서 6천만원을 감액했다. 광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AMH가 1.5ng/ml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난자동결 시술비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AMH 수치 1.5ng/ml 이하는 40대 이상이거나 난소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수치로 20~50세 여성 AMH 평균수치는 3.6ng/ml이다. /박선강 기자

박 의원은 “여성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와 난소 예비력에 있다”며 “연령과 상관 관계가 높은 AMH 수치와 소득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해 사업 효과의 한계가 이미 예상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광주시 추계로 2022년엔 4천200명이 난임진료를 받아 사회적 비용 지출로 이어졌다”며 “항물리관호르몬 수치 소소득 기준을 폐지해 난자동결을 희망하는 많은 여성에게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

## “광주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기준 비현실적”

## 김지사, ‘통합 합의’ 감사·지원 약속

양 대학 총장 등 면담...통합의대 차질없는 추진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목포대·순천대 총장과 대학 관계자들을 각각 만나 양 대학 ‘통합 합의’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통합 전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양 대학의 ‘통합 합의’는 역사적 쾌거”라며 “통합으로 가는 데 통큰 결단을 내려준 양 대학 총장과 관계자들에게 도민의 이름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1도 1국립대 정책을 지향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느슨한 통합모형’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전남도 통합대학이 정부 정책을 선도하고 전국 최초의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고등교육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힘껏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대학이 잘 돼야 지역도 잘된다”며 “통합이 되더라도 글로벌 지정에 따른 지원은 그대로 하고 대형 국제과제나 주요 시책 참여, RISE 사업 등 통합 후에도 더 큰 지원이 가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도는 22일까지 ‘통합의대’를 정부에 추천할 예정”이라며 “이후 양 대학에서 20일까지 ‘통합의대’ 명의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예비인증평가 신청, 12월 말까지 ‘대학통합 신청서’ 정부 제출 등 통합의대 설립을 위한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 전남권 의대 설립방식 ‘통합의대’로 확정

공모방식 폐기... 22일 정부에 추천 해결에 기여하는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통합 의대와 함께 투 트랙으로 추진되던 ‘공모 추천’ 방식은 공식 폐기됐다. 용역사는 전남권 의대 설립 방식이 통합의대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설립 방식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의대 계획서를 검토하고 자문하는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 대학으로부터 통합의대 계획서를 제출받아 기본 방향에 대한 설립방식 선정위원회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오는 22일 전남도가 정부에 최종 추천할 수 있도록 보고할 방침이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화정동 757-34 힐스테이트1단지(763세대) 정문앞  
시교육청정문점 대로변 대지 275㎡ 3층 건물  
급매 11억 7,000(조정가)

광주역앞(중흥동 704-13,14) 6차선 대로변 상업지역  
대지 591㎡ (평수 추가 가능)  
2층 건물 음식점, 커피카페, 전시장 등 최적  
급매 3.3당 1,200만원(조정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인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원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급이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